특정 문화시설 집적지의 활성화 방안 연구

—안동시 종교문화타운 조성을 사례로—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Using Specific Cultural Cluster

—Focus on religious cultural town composition in Andong City—

권기창, 윤성욱
경북도립대학교 IT특약계열

Ki-Chang Kwon(kichang@gpc.ac.kr), Sungwook Yoon(uvgotmail@nate.com)

요약

도시 내의 종교시설집적지를 종교문화타운으로 조성할 경우 각 종교가 지니고 있는 사랑·봉사·화해와 소통 등의 바람직한 가치를 결집시켜 도시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도시의 사회문화적 역량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도심재생과 지역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종교 문화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안동시 목성동 일원을 종교문화타운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교육·문화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지역 활성화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다종교가 한곳에 모여 있는 종교문화타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화해와 소통, 봉사를 주제로 개발 컨셉을 설정하였다. 기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개발 컨셉에 따라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한 종교타운이 도시재생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 지역주민과의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한 방안,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종교문화타운이 활성화 되면 주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 중심어 : | 문화공간 | 종교문화타운 | 도시재생 |

Abstract

When a urban religious cluster is transformed into a religious cultural town, it will help restore the urban community spirit and boost the social, cultural competence of a city. It can be achieved through the desirable values associated with love, service, reconciliation, and communication of each religion combined together. Also, it can facilitate urban regeneration and local revitalization.

This study has established measures to stimulate Mokseong-dong in Andong City, an area with lots of religious, cultural facilities, by transforming it into a religious cultural town. The purpose is to play a key role in leading the regional education and culture and stimulating the area. To establish an identity of the religious, cultural town with multiple religions, a development concept was created under the theme of reconciliation, communication, and service. Specifically, a measure to reorganize the area into a space for reconciliation, communication, and service was created with an operation and stimulation program, focusing on the religious facilities. In addition, in order to transform the religious town into a hub of urban regeneration, measures to achieve the following were created: growing together with the surrounding area; establishing a cooperation system involving local residents; establishing an administrative, financial support system. If the religious, cultural town is revitalized, it can boost the quality of local residents and stimulate the local economy.

■ keyword : | Cultural Space | Religious Cultural Town | Urban Regeneration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도시의 이미지는 그 지역의 역사 및 문화, 경제사회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형성된다. 도시의 문화 활동은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도시의 문화 환경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도시문화자원에 대한 가치부여와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도시공간의 심미성 추구 및 쾌적성, 문화정책의 제도적 활성화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1].

종교 문화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안동시 목성동 일원은 과거 행정과 교육, 민간신앙의 발상지로서 안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나 도시화의 진행으로 그 기능이 많이 쇠퇴되어 지는 동시에 주변지역의 난개발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종교 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특이한 공간을 종교적인 공간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문화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방안 제시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안동시 구도심의 중심지인 안동시 목성동 일원의 종교문화시설집적지로 한정하였다. 이 지역은 법흥사, 사직단, 관악묘 등이 있었던 신성지역으로 현재에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성덕도, 유교 등의 종교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안동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성장잠재력의 중심지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M.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론적으로 원용하여 연구자가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사례분석, 법제분석, 전문가 조사, 현장방문을 통한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종교문화타운 연구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재구성된 모형에 따라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집적 시설지는 클러스터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문화시설이 상호 협력의 바탕위에서 문화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 환경 속에서 수직적·수평적 연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등을 창조하며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문화적 창의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창출하고 문화적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클러스터화는 지역발전에 있어 최근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2]. 이와 같은 상황에서 클러스터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용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를 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적용하여 보았다.

2. 이론적 모델

클러스터와 관련된 이론들은 다양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고 지리적 집적을 강조한 M.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분석 틀로 소개한다. Porter는 다이아몬드 모델에서 국가 경쟁력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의 경쟁력도 동시에 분석하고 있으며 클러스터의 형성 및 발전에 있어서 요소조건, 수요조건, 등의 기본적인 입지 조건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내에 있는 연관 및 지원 산업, 기업의 전략 수립과 경쟁관계 확립을 위한 여건의 4가지 요소를 제안하였다. Porter는 이들 4가지 요소들간의 상호관계가 특정지역내에서 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1. 다이아몬드 모델

II. 특정 문화집적시설지의 활성화의 의의

1. 의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정 문화집적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모델을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III. 종교문화타운 조성의 배경 및 방향

1. 종교문화타운의 의의 및 배경

타운의 사전적 의미로는 특정지역에 특정기능이나 시설들을 의도적으로 개발·집중시키기 위한 개발 계획적 용어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레저타운, 실버타운, 테크노타운(Techno town)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종교문화타운의 의미는 도시 내 특정구역에 종교 및 관련 문화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개발 계획적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에 적용하는 종교문화타운의 경우 사례도시의 생성·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수의 종교시설들이 집적되어 있는데, 이 종교시설 집적지를 재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종교문화타운 조성의 기본방향

종교문화타운은 역사·사회·문화적으로 안동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문화 활동을 통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의식 수준향상과 함께 지역민의 유대는 물론이고 다종교의 성지로 만들어 종교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양한 종교를 한곳에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새로운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종교문화타운이 가지고 있는 화해와 소통이라는 특성을 다양한 콘텐츠와 융합시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사회·문화적 가치 회복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 공동체 의식이 함양 될 수 있다. 또한 역사·문화적 환경을 보존하고 재생하는 것이 도시의 정체성 확립에 기초가 되고 도시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된다.

3. 종교문화타운 조성의 성과 도심 재생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기존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경제적 재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3].

종교문화타운은 안동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가까운 거리에 웅부공원, 전통문화 콘텐츠 박물관, 영상 미디어센터, 경북문화콘텐츠 진흥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문화 확장성이 용이한 곳이다.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 종교집적시설지역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보존하고 재생하는 것은 도시의 정체성 확립에 기초가 되고 도시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IV. 선행연구 및 활성화 요소 도출

1. 선행연구

종교문화 공간의 중요성이 최근 강조됨에 따라 종교문화공간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종교문화공간이 신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불교공간의 경우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템플 스테일로 활용되고 있고 유교의 향교와 서원은 인성과 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신교의 경우 예술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개별 종교공간의 활용방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개별 종교 공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 시설이 모여 있는 복합공간을 종교의 벽을 넘어 비교·전시·체험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종교간의 화합과 상생을 통해 도시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의 교육과 문화를 선도하는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표 1.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활용	비고
불교 공간	여태동	템플스테이의운영실태와 향상화 방안	선문화연구 Vol.3(2007)
개신 교 공간	최학	교회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개혁주의 교회성장 No.2(2008)
천주 교 공간	정희선	종교공간의 장소성과 사회적 의미의 관계-영동성당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 회지 Vol. 7 No.1(2004)
유교 공간	이미림	향교의 현대적 활용방안 모색	동양고전연구 Vol.42(2011)

2. 사례분석

2.1 세계종교박물관

세계종교박물관은 “전 국민의 생명교육을 확대하고, 종교예술문화를 관람하며,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타이페이(臺北) 융허(永和) 중산루(中山路)에 개관한 박물관으로 불교, 이슬람교, 고대 이집트 종교, 유대교, 기독교, 대만 민간 신앙, 인도교(힌두교), 시크교, 마야 종교, 신도교(일본 전통 종교), 도교 등 총 11개 종교와 관련한 유물이 전시되어 종교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4].

이 박물관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다양한 종교를 마찰 없이 한 공간에 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종교에 대한 편파적 시각 없이 공통적 진리인 ‘사랑과 평화’를 테마로,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안동시 종교문화타운의 경우 민간신앙의 발상지이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성덕도가 공존하는 다른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공간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면 다문화적 정황 속에서 중요한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2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역사를 입체인형 전시, 영상 전시, 영상 공연 등의 기법을 통하여 체험하도록 돕는 에듀테인먼트형 테마파크로서 중국계, 인도계, 말레이시아계, 유럽계 등 4대 주요 민족·인종이 싱가포르를 건국하고 발전시켜 온 역사를 전시하여 ‘화합과 평화’의 정신을 제시하고 있는 시설이다. 종교적 소재나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각 민족·인종의 생활풍속과 문화를 전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민족·인종의 문화적 뿌리인 종교문화의 요소가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요소는 축제나 관혼상제 같은 통과의례 영역에 대한 전시에 있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5].

다양한 민족·인종이 섞여 사는 싱가포르에서는 ‘공동체간의 조화’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덕목이다.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는 각 민족·인종의 생활풍속과 문화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그 뿌리가 되는 종교를 생활과 문화의 배경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를 부여하였다. 이는 자국의 역사를 이해하려는 싱가포르인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주요한 방문지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종교문화타운 지역의 경우 안동의 역사와 뿌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공간임으로 이를 잘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한다면 역사적인 명소로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2.3 홀리랜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교테마파크로, 성경 속의 장면들과 예루살렘의 성지를 재현하여 관람객들로 하여금 성스러운 장소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감동을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예루살렘 거리를 구경하듯 이 곳 저 곳을 다니다 보면 다양한 이벤트들이 펼쳐지는데, 이러한 쇼 이벤트를 통해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성막 제사 재현 공연과 관련 영상도 관람할 수 있고 곳곳에서 예수의 흔적들을 만날 수 있으며, 예수로 변한 배우가 예수의 행적을 연출함으로 인해 성경 소재의 영화나 그 어떤 공연에서 느껴보지 못한 생생한 감동을 받게 된다.

공간적으로 7,000마일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 3,000년 전의 지점에 있는 성지 예루살렘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교육적, 종교적, 역사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성서의 세계를 보여주려는 하는 것일 뿐 직접적인 선교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6].

종교문화타운 지역은 하나의 공간에서 모든 종교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자연적인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각 종교에 대한 의미를 공감할 수 있도록 선교적인 활동보다는 교육과 문화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성화 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활성화 요소 도출

본 연구는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종교문화타운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클러스터의 지리적 집적을 강조하는 M.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론적으로 원용하여 선행 연구, 사례분석, 전문가조사, 주민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종교문화 타운 활성화를 위한 요소조건, 수요조건, 조성방안, 활성화 방안의 결정 요소를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 요소조건에는 역사적 환경, 자연환경, 인문·사회적 환경을 수요조건에서는 이용자 특성, 잠재력 분석의 필요조건을 도출하였다. 조성방안에서는 컨셉 및 비전, 공간계획, 경관계획, 추진방법을 활성화 방안에서는 운영프로그램, 도시재생과의 연계,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 지역주민과 협력체계 구축, 추진위원회의 필요조건을 도출하였다. 위 네가지 결정요소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종교문화타운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 네가지 결정요소를 중심으로 세부 필요조건을 종교문화타운 활성화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 사례연구 분석 모델

V. 종교문화타운 개발여건 분석

1. 역사적 환경

태백산의 한 갈래인 목성산은 안동읍성 내부에 진입한 유일한 문수지맥으로 상촌 김씨의 민간설화가 전해지고 있고 관악묘가 있었던 곳으로 민간신앙의 발상지이다. 또한 목성산에는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는 사직단(社稷壇)이 있었다. 사직단은 토지를 주관하는 신인 사(社)와 오곡을 주관하는 직(稷)에게 제사를 지내는 두 개의 단으로 된 제단으로 자연신에 대한 숭배사상을 지

방정부의 공식제사로 승화하여 백성을 중심으로 통치를 하겠다는 유교정치의 상징적 장소였다[7].

종교문화타운은 민간신앙의 발상지이자 안동불교의 구심지로서 자연신앙의 제단인 사직단과 안동 향교가 있었던 곳으로 안동역사에 있어서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던 곳이다.

그림 3. 안동읍도

2. 자연환경

이 지역은 목성동·화성동의 일원으로 과거에는 목성산을 중심으로 안동읍성의 서북지역이었으나 근대 도시 발달 이후 안동의 중심부의 위치에 있다. 안동시에는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세 개의 도로가 있는데 종교문화타운을 지나는 동서통로는 가장 북쪽에 있으며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도로이다. 또한 종교 타운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안동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3. 인문사회 환경

이 지역에는 가톨릭 주교본당인 목성동 성당, 안동지역 개신교의 본원이라 할 수 있는 안동교회, 한국불교 16본산 포교당 대원사, 안동 김씨 종회소, 향교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유교문화회관. 유·불·선을 교합한 신흥종교인 성덕도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전통종교, 서양종교, 신흥종교가 도심 중심부에 모여 있는 곳으로 다른 도시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림 4. 종교문화타운 현황도

4. 이용자 특성

종교문화타운내 이용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종교인들로서 기도와 수행을 목적으로 종교문화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각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한 대부분 종교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독교 공간의 경우 100주년 기념관이 개관되어 세미나실과 커피숍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종교문화공간을 이용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이용 목적

구 분	이용 목적
불교공간	기도와 수행, 불교대학, 어린이 유치원,
개신교공간	예배와 수행, 결혼식, 회의, 커피숍, 유치원, 경로대학, 평생교육
천주교공간	예배와 수행, 결혼식, 유치원,
유교공간	유림단체 회의, 세미나, 단체 사무실
기타공간	주거 및 상업

5. 잠재력 분석

종교문화의 공통점인 생명·환경·지속가능성 등은 21세기 미래가치와 일맥 상통하므로 종교문화는 미래가치 실현의 중요한 통로임으로 이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하고 도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VI. 종교문화타운 조성 및 활성화 방안

1. 조성방안

1.1 컨셉 및 비전

종교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컨셉 및 비전설정을 위해 서 종교시설들이 입지하고 있는 목성동과 화성동의 동명 앞 글자를 합성하여 ‘목화’를 컨셉으로 설정하였다. 목화(木花, cotton)는 어머니의 사랑, 온정. 어머니의 자식사랑 처럼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이 다종교 다문화 사이의 존중과 사랑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상징한다. ‘木化’ 개념은 ‘행동 → 대화 → 공감’의 3단계 인지과정을 ‘봉사 → 소통 → 화해’라는 개념으로 재구성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5. 조성 컨셉

봉사(나무를 키우는 행동, 木)는 행동을 통한 종교간 협력의 시작이고 소통(꽃들의 대화, 花)은 서로의 아름다움 속에서 몸짓과 마음을 나누는것이다. 마지막으로 화해(목화 열매를 나누는 화해, 木花)는 종교간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대동과 공감의 결실을 맺는 단계이다. 이와 같은 컨셉을 바탕으로 사례 종교문화타운의 비전을 ‘미래지향적 다종교문화 창조의 기반시설로서 종교문화타운’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1.2 공간계획

종교문화타운은 봉사, 소통, 화해라는 세 개의 ZONE으로 구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유교문화회관, 목화관, 김씨 종회소를 중심으로 봉사공간을 기획하였고 소통공간은 공간적으로 단절된 종교 시설을 연결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였다. 화해 공간을 종교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들 누구나 종교에 대한 부담감 없이 다종교에 대한

이해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그림 6. 공간 계획

봉사공간인 목화관은 종교문화 타운의 봉사, 소통, 화해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허브 공간으로 방문자를 위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성덕도, 유교 등 관련 공통 주제 체험 및 명상 시설이 도입되는 체험존과 현 종교타운 주변에 흩어져 있는 종교 용품점을 한곳에 모아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복합테마공간인 교류존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소통공간은 기존의 종교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성덕도 등의 종교시설을 종교인만을 위한 선교의 시설이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종교시설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담장을 철거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전 종교시설을 하나의 벨트로 만들기 위해 산책로로 연결하였다.

그림 7. 소통공간 계획안

화해공간인 화성공원은 종교문화타운내에 존재 했다가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진 유교관련 시설인 안동향교, 사직단, 기독교 관련 시설인 천막교회, ㄱ역자 11칸 예배당, 목조 함석 지붕예배당, 종탑, 천주교 시설인 근대 목성동 성당 등을 미니어처로 복원해 안동의 종교 발전사를 재조명하는 명소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화성공원은 종교인들에게는 유서 깊은 종교유적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안동의 근·현대 역사문화를 되새겨 보는 공간이 될 것이다. 공간 구성은 공원 중앙에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광장을 배치하고 주변에 종교 시설물을 배치하여 종교 간 화해의 장을 만들었다.

그림 8. 화성공원 공간 계획

1.3 경관계획

현재 종교 문화타운 지역은 종교시설물이 담장으로 둘러 쌓여 있어 타 종교 시설물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주변지역 또한 오래된 주택들로 인해 슬럼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조명 부족 등으로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장을 철거하고 각 종교시설을 쉽게 순환할 수 있도록 순환산책로를 조성하고 야간 경관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공간을 연출하여야 한다.

종교문화타운을 종교적 문화와 특성을 살린 창의적 공간, 쾌적하고 건강한 이용자 중심의 공간, 자연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친환경 공간,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참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시설을 지중화하고 주변 가로등, 간판 등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공공 디자인의 개념을 적용하였고, 담장 철거를 통한 열린 공간 조성과 함께 입간판, 현수막, 노상주차장, 쓰레기가 없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특히 야간 경관은 은은하면서 서정적인 녹지 경관에 빛을 전파하기 위한 경관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에 반영하였다.

1.4 추진방법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 2종 일반 주거지역과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자원 보존 지구,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한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지구,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보전 산지 등 많은 제약조건이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은 제약조건 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별법"에 의한 종교문화타운 특구를 지정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종교문화특구는 자치단체장이 신청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특구가 지정되면 30개 법률에 관한 특례와 19개 법률 의제 처리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 각종 지원금 등 다양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2. 활성화 방안

2.1 운영 프로그램

종교시설이 종교적인 목적 이외에 문화시설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종교인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종교시설의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접도심부의 문화시설 부족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도심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상업시설의 혼재와 예산 등의 문제로 문화시설을 새롭게 구축하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종교시설을 활용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종교문화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간별 활용 프로그램은 다음 [표 1]과 같다[8].

표 3. 공연프로그램

구 분	활 용
문예공연시설	산사음악회, 영화상영, 연극공연, 문학 낭송회 등
전시시설	종교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보급시설	교회 교육관의 문화강좌, 노인대학, 어린이 공부방 등
지역문화시설	생태환경, 평생의례, 축제, 종교간 연대, 등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급식, 재활센터, 장애우 시설, 쉼터, 근로자 상담, 청소년 상담 등
수련시설	영성, 명상센터, 수행체험
건 강	스포츠, 심신수련시설프로그램

2.1.1 가톨릭 시설

천주교 공간은 과거 민주화 운동의 장으로 많이 이용되었으나 90년대 이후 지역문화 활동에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카톨릭 신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들이 카톨릭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대규모 시설인 성당의 예배당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회, 혼례, 전시회 등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지역 내 소외계층 및 다문화 가족의 교육·문화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용이하다[9].

2.1.2 기독교 시설

지역주민과의 빈번한 접촉을 바탕으로 콘서트, 영화제, 연극제, 취미문화센터, 사회교육강좌, 노인대학, 의료서비스, 문화강좌 등 일반대중 및 청소년·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특화 운영 할 수 있다[7].

2.1.3 불교 시설

지역의 역사·문화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통해 특히 일반대중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음악회, 불교 및 전통문화 강좌, 템플스테이, 선문화 체험, 향토수호제, 연극공연, 불교대학, 문화교실, 문화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특화 운영할 수 있다[10].

2.1.4 유교 시설

전통문화유산의 창의적 전수 및 보존이라는 의미에서 한문·서예교육, 유교 경전교육, 전통예절교육 등 주로 강의 중심의 문화교육 형태와 의례 및 제례 등의 체험프로그램 등을 특화시킬 수 있고, 선비문화와 효문화 등을 축제화할 수 있다.

2.1.5 성덕도 시설

성덕도의 특성상 심신 수련, 전통문화강좌 등의 강의·수련 중심의 문화프로그램을 특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단전호흡, 정신수련 등 인간의 질병을 치유 예방할 수 있는 심신 수련 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하다.

2.1.6 목화관 및 공원시설

주민 및 각종문화단체들의 활용도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각 종교별 전시 프로그램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며, 야외공간은 각 종교별 역사공원 및 주민 쉼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각종 문화강좌, 문화공연, 청소년 및 소외계층 공부방 운영, 소규모 도서관 운영, 장터 개설 등이 가능하다.

2.2 도시재생과 연계

종교문화타운 지역은 안동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종교문화타운을 중심으로 안동의 기존 도시를 창조적인 도심문화 및 관광활성화의 거점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웅부공원과 안동역 사이에는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가 건설되고 있으며, 웅부공원에서 종교타운 사이의 일원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안동시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강변에 있는 예술의 전당, 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장, 청소년수련장 등이 새로 조성된 안동의 대표적 문화공간이라면, 웅부공원·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일원은 도심내에 있는 추억의 문화공간이다. 종교타운과 이 두 개의 공간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미래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연계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계획 수립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경상북도의 중심지로서 상징성을 회복하고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가치증대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 및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 토대 조성으로 새로운 문화생산여건을 창출하고 산재된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구도심의 문화, 상업, 관광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창조도시 공간 조성으로 도심상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도심내 유동인구 증가, 문화·상업·관광기능이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11][12].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문화산업지구 활성화계획과 도심 재생사업에 세부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반영하여 종교문화타운을 중심으로 구도심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3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

종교 문화 타운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우선적으로 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종교시설을 제외한 민간소유의 주택들은 매입을 하여야 하고, 전기 통신 지중화, 경관계획, 공동시설물, 미니어처 공원 조성 등 초기에는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 조성된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운영되기 까지 최소한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지속되어야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으면 전문적 기획력을 갖춘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고 인적·물적 자원 조달 미비로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이는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고 더불어 문화프로그램의 효율적인 홍보 미흡으로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기업의 문화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지원, 문화예술인력양성, 문화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상당부분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행정적인 측면으로는 종교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이 많은 관계로 전문 인력이 아닌 각 종교기관의 기존 인력으로 문화행사를 기획함으로 인해 양질의 문화 창출의 가능성은 낮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연 기획력이 있는 단체나 신자·연예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심력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야 한다. 또한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보수적 인식에 따라 대중적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종교 내부에서의 부정적 평가와 인식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성 있는 선별과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상설화·정착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별법"에 의한 종교문화타운 특구를 지정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를 근거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부가적으로 종교단체, 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여러 주체가 종교문화 타운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4 지역주민과 협력체계 구축

종교문화 타운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 공동체 공간임으로 지역주민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종교문화 타운이 조성됨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삶이 쾌적해지고 종교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종교문화 타운 조성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종교인들만을 위한 공간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주민들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고 이론인해 초기 사업진행은 물론이고 향후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종교타운이 종교인들을 위한 공간으로서만 활용되어서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각 종교시설별·프로그램별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장기적 차원에서는 지역의 예술·문화계와 종교계 문화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종교타운 문화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정보교환 뿐 아니라 교육·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협의회를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타운의 운영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사회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주민생활협의회, 경북문화컨텐츠 진흥원, 안동시, 시장 상인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되어야 한다.

2.5 추진 위원회 구성

종교문화타운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종교의 대표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들에게 최대한 만족감을 부여해나가야 하고 향후 자립적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벽을 넘어서 공용 공간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종교문화 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종교단체대표, 운영전문가, 봉사자, 지역대표 등의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종교문화타운의 목적을 구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강령이나 지침을 만들어야 하고 더불어 화해와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공동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종교문화공간이 지역사회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경북 유교문화회관은 유교문화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안동시의 교두보일 뿐 아니라, 다 종교간 문화적 소통과 교류를 위한 장소이다. 유교문화는 종교적 성격이 적고 생활문화적 성격이 크므로 유교문화공간내 목화관에 다 종교간 소통의 역할을 수행할 추진위원회 조직을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Ⅶ. 특정 문화시설 집적지의 발전 전략

M Porto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서 특정지역이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들간의 상호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화 시설 집적지역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각 요소들이 상호 협력 및 보완적 관계를 설정함으로 인해 문화

집적 시설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게 된다.

1. 입지선정

입지 선정과 관련 되어서는 문화시설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인위적으로 새로운 곳에 조성을 하면 문화적 정체성과 자생력을 키우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적·물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성공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2. 인프라 공동 활용

단한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각 시설물관 소통이 원활 해야 한다.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연구 인프라와 기반 시설 등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면 비용절감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운영프로그램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각 시설물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불특정 다수인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야 하지만 일반인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어야 한다.

4. 추진주체

분명한 추진 주체가 있어야 한다. 다수의 시설이 인접되어 있는 관계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추진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각 시설의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진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주변지역 발전과 연계

문화시설 집적지의 활성화가 주변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계획 수립은 지역주민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V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M.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론적으로 원용하여 종교문화타운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았다.

다종교가 한곳에 모여 있는 이색적인 공간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화해, 소통, 봉사를 주제로 개발 컨셉을 설정하였다. 기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화해와 소통과 봉사를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기독교시설, 불교시설, 천주교시설, 성덕도 시설, 문화 공간 시설 등을 활용한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한 종교타운이 도시재생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과 지역주민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 제시와 함께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종교문화타운이 가진 잠재력을 바탕으로 타운이 활성화 되면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이 질이 향상 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더불어서 새로운 종교문화관광자원으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박은실, “문화활동유형에 따른 문화지구 형성과 장소 마케팅”, 공간과 사회, pp.30-61, 2002.
- [2] 심상민 “지역문화산업 혁신클러스터 세모델 연구”, 인문콘텐츠, 제17호, p.349, 2008.
- [3] <http://www.kourc.or.kr/>
- [4] http://www.mwr.org.tw/index_en.aspx
- [5] <http://www.sentosa.com.sg/en/attractions/>

imbiah -lookout/images-of-singapore/

[6] <http://www.holylandexperience.com/>

[7] 安東市史 1-5, 安東市史編纂委員會, 1999.

[8] 정정숙, 종교시설의 문화적 활용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9] 종교문화공간의 사회적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 보고서, 한국종교연구소, 2003.

[10] 김명기, 주 5일근무제에 따른 교회공간 활용방안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1] 안동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서, 2014.

[12] 강동진, 이순자, 도시재생을 위한 근대역사 환경 활용방법분석: 부산, 광주, 군산을 사례로, 국토연구원 보고서(국토연 2008-19), 2008.

윤 성 욱(Sungwook Yoon)

정회원

▪ 2013년 2월 : 안동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공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안동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박사과정)

▪ 2013년 3월 ~ 현재 : 경북도립대학교 IT특약계열 강사

<관심분야> : 멀티미디어 응용, 공간음향설계, 유비쿼터스, 문화공간, 사물인터넷

저 자 소 개

권 기 창(Gi-Chang Kwon)

정회원

▪ 1985년 2월 : 안동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1993년 2월 : 대구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지역개발학과(경영학석사)

▪ 2000년 2월 : 영남대학교 대학원 통계학과(이학박사)

▪ 1993년 ~ 1997년 : 안동과학대학교 사무자동화과 교수

▪ 1998 ~ 현재 : 경북도립대학교 IT특약계열 교수

<관심분야> : 문화정책, 문화공간, 영상처리